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

장하영¹, 이창식², 유은경^{1*}

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²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Adolescents'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Ha-Young Jang¹, Chang-Seek Lee², Eun-Kyung Ryu^{1*}

¹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and Psychology, Hanseo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Health, Counse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 사이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S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우울감은 성별과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과 우울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가정학대와 우울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조절효과분석 결과 가정학대와 우울감 사이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가정학대 경험, 교사관계 적응, 우울감, 청소년,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adolescents'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495 adolescents in high school in S city, Chungcheongnam-do,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mean comparis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of adolescent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ut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Third,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analysis showed that the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Finally, based o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reduce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Key Words : Domestic abuse experience,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Depression, Adolescent,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Kyung Ryu(yek0444@hanmail.net)

Received August 19, 2019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18,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우울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을 말한다[1]. 이러한 심리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로써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침체되어 있는 심리상태가 내재화된 증상을 말한다[2]. 특히 고등학생들은 신체적·심리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와 그들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3].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가족 관계와 같은 대인적 요인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4].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절망스럽거나 슬픈 감정을 느낀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체의 30.5%로 나타나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10대 학생들의 질병 및 장애의 원인 1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이 14세 무렵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요소 중 가정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육태도, 애착관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학대경험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7].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경험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인터넷 중독 또는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9], 최근에는 가정학대 경험이 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지영 등[10]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박재연[11]은 가정 내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 및 학대와 같은 가족환경 문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12],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학생들의 의

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대란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방임, 유기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가해 행위를 말하며[13], 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정 내에서 정서학대 64.4%, 신체학대 50.7%, 방임 35.7%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4].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그들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 실제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수가 2001년 이후 80.3%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6].

한편, 청소년의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7].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을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8].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대인관계를 통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19].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이 힘든 학생들은 교내에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높으며[20], 학교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가정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은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들은 교사나 교우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며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부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가정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교사와의 관계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24].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 적응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의 마지막 과정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심리적인 우울감을 경험하는 요소가 다양하며 대인 관계에 따른 차이가 분

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저학년을 집단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관계 적응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 적응은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가정학대 경험으로 인한 우울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가정학대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12]와 교사관계 적응 간의 연구결과[22,24]를 종합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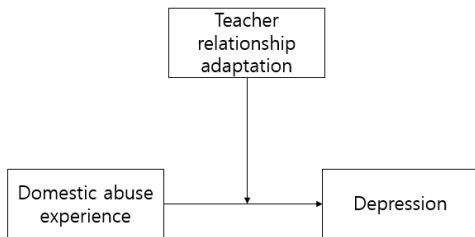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S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80명(37.8%), 여학생이 296명(62.2%)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이들의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가 351명(74.2%), ‘편부모’가 52명(11%), 조손가족 및 기타가 70명(14.8%)으로 ‘양부모’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의 경우 309명(65.7%), ‘외벌이’의 경우 161명(34.3%)으로 맞벌이 부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상’은 72명(15.8%), ‘중’은 240명(52.5%), ‘하’는 145명(31.7%)으로 ‘중’이 가장 많았고, ‘하’, ‘상’ 순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가정학대 경험

가정학대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행하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사용된 가정학대 경험은 배미희[25]가 사용한 가정폭력경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험한 언어적, 정서적, 경미한 신체적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의 가정폭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가정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3.2 교사관계적응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김아영[26]의 학교적응 척도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교사관계와 관련된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교사관계와 관련된 문항은 총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적응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2로 나타났다.

2.3.3 우울감

우울(depression)은 슬픔, 공허함,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증상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우울 척도는 SCL-90의 하위척도 중 Choi[27]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7].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 성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4로 나타났다.

2.3.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가족구성 형태, 맞벌이 여부,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

를 사용하였고, Duncan/Dunnet T3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학대와 연구대상의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t=-3.811, p<.001$), 학업성취도는 ‘하’인 학생이 ‘상’, ‘중’인 학생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F=6.219, p<.01$). 그 외, 가족구성 형태($F=1.592, p=.205$) 및 맞벌이 여부($t=-1.451, p=.147$)에 따라서는 우울감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1. Depress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0>

		Depression		
		N.	Mean(SD)	t/F (Duncan)
Gender	Male	180	2.31(.78)	-3.811***
	Female	295	2.61(.83)	
Family type	Intact	395	2.51(.80)	1.592
	Single	52	2.51(.88)	
	etc	25	2.20(1.02)	
Dual income	Yes	308	2.45(.79)	-1.451
	No	161	2.57(.88)	
Academic achievement	High	72	2.30(.84)	A
	Middle	240	2.44(.83)	A
	Low	144	2.69(.79)	B

* $p<.05$, *** $p<.001$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가정학대는 교사관계 적응과, 교사관계 적응은 우울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가정학대와 우울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5$). 이 중, 교사관계 적응과 우울감($r=-.168, p<.0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r=-.146, p<.01$), 가정학대와 우울감($r=.101, p<.0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168 \sim .101$ 로,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ajor Variables

	1.	2.	3.
1. Domestic abuse experience	1		
2.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146**	1	
3. Depression	.101*	-.168**	1
Mean	1.27	3.46	2.49
SD	.51	.73	.82

* $p<.05$, ** $P<.01$

3.3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의 가정학대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가정학대 경험은 우울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1891, $p<.05$), 교사관계 적응은 우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1814, $p<.001$).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54, $p<.01$). 즉, 가정학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관계 적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 항의 추가도입으로 인한 R^2 의 증가분은 .0549($p<.001$)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모델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β	SE	t	p
Domestic abuse experience	.1891	.0754	2.5066	.0125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1814	.0507	-3.5768	.0004
Domestic abuse experience ×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3254	.1007	3.2328	.0013
R^2 increase due to interaction	R^2		F	p
	.0549		9.1986	.0000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효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가정학대와 우울감의 관계의 단순기울기는 교사관계 적응 값이 평균 및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Conditional Effects according to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Effect	se	t	p	LLCI*	ULCI**
-1SD(-.7340)	-.0498	.0910	-.5470	.5846	-.2285	.1290
M(.0000)	.1891	.0754	2.5066	.0125	.0409	.3374
+1SD(.7340)	.4280	.1184	3.6134	.0003	.1953	.6607

*LLCI=The lower limit of the indirect effec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The higher limit of the indirect effec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한 유의성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Table 5와 같이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파악할 수 있다.

가정학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관계 적응 값이 -1.4768보다 낮은 영역과 -1.398보다 높은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고, -1.4768보다 높고 -1.398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관계 적응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에만 가정학대와 우울감과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1.4768 < \text{교사관계 적응} < -1.398$ 영역에서는 교사관계 적응이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Moderating Area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Effect	se	t	p	LLCI	ULCI
-2.2622	-.5471	.2207	-2.4794	.0135	-.9807	-.1135
⋮						
-1.5022	-.2998	.1506	-1.9908	.0471	-.5956	-.0039
-1.4768	-.2915	.1483	-1.9650	.0500	-.5830	.0000
-1.398	.1436	.0731	1.9650	.0500	.0000	.2872
.0178	.1949	.0759	2.5670	.0106	.0457	.3441
⋮						
1.5378	.6896	.1889	3.6504	.0003	.3184	1.0608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에 따른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조절변수인 교사관계 적응을 고/중/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정학대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교사관계 적응이 높은 집단은 가정학대가 낮을 때 우울이 낮았으나 가정학대가 증가하면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사관계 적응이 낮은 집단은 가정학대가 낮았을 때 우울이 높았으나 가정학대

가 증가하면서 우울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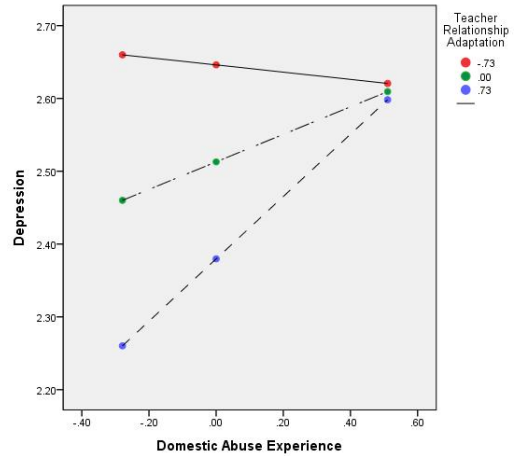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8-3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을 경험한 여학생이 27.8%, 남학생이 1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이러한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정서적 반응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32].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학업성취도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이 검정 결과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창식 등[33]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따른 우울증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을 학업 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그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 우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은 부적 상관관계, 가정학대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사관계 적응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정학대 경험과 교사관계 적응이 그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가정학대 행위를 감소시키고 교사관계 적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beta=.3254, p<.01$). 이는 고등학생이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심리적 우울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인관계 중심적이고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관계 적응이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학대 경험으로 인한 우울감에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인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교사관계 적응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학교급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차후 전국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별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D. Brown & T. A. Mankowski. (2014).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2] S. H. Kim, H. R. Yim, & I. J. Chung. (2014). The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iddle school. *Studies on Korean Youth, 25*(4), 5-33.
- [3] Thoits & A. Peggy.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 [4] D. R. Riso & R. Hudson. (1996). *Personality types: Using the Enneagram for self-discover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5] T. H. Park & K. H. Lee.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Depression on the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3), 353-361.
- [6] E. H. Gong & W. Y. Kim. (2017). Meta-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3), 61-75.
- [7] J. C. Kim, G. J. Seong, & H. K. Cho.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Parent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ternet Addiction, and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69-97.
- [8]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4).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9] S. H. Yoo. (1996). Psychosocial approach to the stress of the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2), 121-139.
- [10] J. Y. Kim & K. H. Lee. (2015). Effect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752-760.
- [11] J. Y. Park. (2014).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Subjective Happin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1), 201-224.
- [12] R. A. Colman & C. S. Widom. (200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28*(11), 1133-1151.
- [13] H. S. Han. (2008).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the Child's Adaptation to Daily Lif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14] J. Y. Kim, S. M. Sung, H. Y. Park, & K. J. Han. (2018).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repetitive runaway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9*(1), 239-263.
- [15] J. C. Kim, G. J. Seong, & H. K. Cho.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Parent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ternet Addiction, and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69-97.

[16]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4).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 K. Ranta, R. Kaltiala-Heino, M. Pelkonen, & K. Marttunen. (2009). Associ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comorbidity. *Journal of Adolescence*, 32, 77-93.

[18] W. K. Park. (2006). *Depression and Anxiety, and School Adaptability of Second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19] J. Y. Park. (2010).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 where child abuse have effect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 61-92.

[20] K. O. Lee & M. R. Lee. (2013).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3(1), 13-28.

[21] J. M. Kim & S. J. Song. (2014).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1), 5-27.

[22] W. L. G. Hoglund & C. A. Chisholm. (2014). Reciprocating risks of peer problems and aggression for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50(2), 586-599.

[23] K. M. Rudasill, A. B. Gonshak, P. Possel, N. Stipanovic, & A. Nichols. (2013). Assessments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i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18(3-4), 193-211.

[24] S. H. Kim, H. R. Yim, & I. J. Chung. (2014). The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iddle school. *Studies on Korean Youth*, 25(4), 5-33.

[25] M. H. Bae. (2013). *A Study of Predictive Model about Offender, Victim, and Bystander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ki University, Suwon.

[26] A. Y. Kim. (2002).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cademic Motivation Scale*.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15(1), 157-184.

[27] H. K. Choi. (1992).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eil University, USA.

[28] S. Nolen-Hoeksema & L. M. Hilt. (2009).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In S. Nolen-Hoeksema & L. M. Hilt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New York: Routledge, 111-135.

[29] R. J. Park, I. M. Goodyear, & J. D. Teasdale. (2004). Effects of induced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mood and overgeneral autobiographical memory in adolesc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ontro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5), 996-1006.

[30] H. Y. Yi & E. H. Ha. (2015).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Factors to Gender Difference o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 *The Journal of Asian Women*, 54(1), 73-110.

[31] Ministry of Education. (2015). 11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Statistics.

[32] S. Y. Park & H. G. Lee. (2013).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2), 73-84.

[33] C. S. Lee & H. Y. Jang. (2017).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Gender Comparis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47-54.

장 하 영 (Ha-Young Jang)

[장학원]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학과 (이학석사)
- 2018년 8월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 졸업
- 2018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상담심리

· E-Mail : besof@hanmail.net

이 창 식 (Chang-Seek Lee)

[장학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유 은 경 (Eun-Kyung Ryu)

[장학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교 컴퓨터공학 (이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상담, 심리, 인권
- E-Mail : yek0444@hanmail.net